

남영전

토템시

일월을 휘어잡은 자유의 넋이여
신단수아래서 장고 치며 춤추던
우리네 시조모, 시조모여

영기적
영기적
영기적
우람한 산악을 끄는 그림자

태고의 전설속에 영기적
백의의 넋 속 에 영기적
요원한 미래속에 영기적

—《곰》

감상

를원소적
아고오무 등 저
설 야 역

호출강출판사
조선민족

남영전

토템신

를원소적
아고오무 등 저
설 야 역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南永前图腾诗赏析: 朝鲜文/雪野译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9
ISBN 978-7-5389-1457-3

I. 南… II. 雪… III. 新诗—鉴赏—中国—现代—朝鲜
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1207.2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38736 号

书 名/ 南永前图腾诗赏析
著 者/ 栗原小荻 阿库乌雾 等
译 者/ 雪野
责任编辑/ 金声宇
责任校对/ 徐燕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长春市时风彩印有限责任公司
开 本/ 640mm×960mm 1/16
印 张/ 13
字 数/ 18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印 数/ 1—10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57-3
定 价/ 18.00 元

차 례

남영전과 그의 토템시를 어떻게 이해할것인가?(서론)/1

달/13

곰/18

신단수/22

백학/26

늪/30

물/35

사슴/39

범/43

백마/47

사자/51

황소/55

양/59

백조/63

매/67

삾꾹새/71

수탉/75

까마귀/79

까치/82

거북/86

고래/90

개구리/94
산/98
불/102
해/106
별/110
구름/114
바람/119
우리/123
비/127
바다/131
산호/135
돌/138
개/142
돼지/146
두꺼비/149
흰토끼/153
제비/157
나비/161
대/165
룽/169
봉황새/173
비둘기/177
토템미학과 생명철학의 시화실천(발문) /181
《감상과 분석》의 작가 소개/199
출판후기(김성우)/200

【서론】

시인 남영전과 그의 토템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참가인사: 모의 독자, 시인, 평론가 등

토론시간: 2004년 4월 24일-26일

토론지점: 성도시 란천로 38호 천부화원 선화각

토론기록: 룰원소적, 아고오무

평의과목: 남영전 토템시집 《원융》⁽¹⁾

A. 남영전과 그의 창작의 주요 룰과

독자: 독자로서 우리는 천성적으로 남을 꼬집기를 즐기거나 비웃기를 좋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만 보고 들은것을 객관적으로 털어놓을뿐입니다. 중국의 당대시단의 현황을 보면 이른바 시인과 시작품이 소털처럼 많아서 날마다 주마등처럼 변하고 교체되는 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것들이 사람의 눈을 새물거리게 하는외 과연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기억해야 하며 우리를만한 시인이나 시작품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너무도 보잘것 없지 않습니까?

평론가: 여기에는 아마 또 독자와 시인지간의 인식과 소통의 문제도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독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시인 남영전의 토템시를 토론하기 앞서 우선 그의 존재특색과 창작배경에 관한 자료를 비교적 익숙히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적어도 더욱 많은 독자들의 지식욕을 만족시킬만한 정보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시인: 제멋에 취해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시가뉴스인물》들과는 판이하게 남영전은 줄곧 저조한 상태에서 조용히 자기의 창작에만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봐도 착실한 시인이자 절대로 광고의미에서 말하는 《시가뉴스인물》은 아닙니다.

독자: 그러나 당대시인이라면 누구든지 모두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할수 없습니다. 즉 매체가 일체를 주재하는 이 시대에 당신은 무슨 자본으로 독자들과 대화를 진행하는가? 독자군은 또 어떻게 아주 빠른 시간내에 당신의 정보가 전달하는 영역과 목표에 도달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광의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른바 《성공한 시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받을 불일수 있게 된 어떤 종합적성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수의 시로 천하에 이름을 날리던 시대는 이미 우리들의 심목에서 진작 《매 지난 동화》로 되였고 절대로 재연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건대 남영전은 아주 각성한 시인인것 같습니다.

평론가: 시인 남영전의 생평과 창작상황에 대하여 국내의 많은 신문과 잡지는 물론 심지어 국외의 일부 출판물들에서도 이미 정도부동하게 평가하고 보도한줄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면 《문예보》, 《시간》, 《민족문학》, 《민족문학연구》, 《서북민족학원학보》, 《동방문학》 등입니다. 특히 그가 18년간 각고하여 창작한 42수의

토텐시로 묶어낸 시집 《원용》에 대하여 효설, 호소, 오개진, 박지우, 추천군, 양자침, 주뢰 등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찬양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듣건대 얼마전에 《원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집이 출판되었다는데 정말입니까?

시인: 그렇습니다. 화중사범대학 중문학부 교수이며 연구생 도사이며 시평론가인 추천군선생의 편저로 된 《원시토텐과 민족문화》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전국 각지의 30여명 학자, 전문가들이 남영전의 토텐시를 평가한 글 38편이 들어있는데 제각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했지요.

독자: 물론 그 어느 독자에게나 모두 시야의 국한성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두 《문맹구역》(盲區)과 《문맹점》(盲點)이 있습니다. 시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자들까지도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날수는 없지요.

평론가: 그것을 《폐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각의 선택문제라고 하는것이 더 합당할것입니다. 왜냐하면 매개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심미관과 착안점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선택에서 경향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लेकिन 한 시인이 어떤 군체속에서는 명성이 대뜸 뜨르르해질수 있으나 다른 어떤 군체속에서는 그 명성이 보잘것없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렇다하여 한 시인의 가치가 변화를 가져온것이 아니며 그것은 주로 선택자의 경향성이 중요한 작용을 논데서 비롯된것입니다. 사실상 시인 대부분은 뉴스에 걸맞은 유명인물이 아닙니다. 단번에 세상이 다 아는 인물로 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는 남영전선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독자: 평론가의 말씀대로 우리의 독자층은 남영전과 그의 시

가창작의 상황에 대한 료해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시가창작의 심미적활동에 더욱 깊이 들어가볼수 있으며 또 리해방식의 선택도 운운할수 있습니다.

시인: 제가 느끼건대 시인과 독자사이에는 시인의 텍스트와 독자의 감지가 가장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인이 시인자신을 인식하는것은 기실 다른 사람이 시인을 인식하는것보다 더 쉽게 오독이 생길수 있기때문입니다.

평론가: 우리의 인상중의 남영전선생은 끈질기게 분투하는 시인이며 걱정이 넘치고 리성이 풍부한 시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영전선생은 한창 혈기왕성한 사람으로서 우리 나라 조선족중에서 가장 이름있는 시인중의 한사람일뿐만아니라 전반 중국 당대소수민족시단 내지 세계중문시단에서도 우수한 시인의 한사람입니다. 남영전선생은 1971 년에 시로 데뷔한 이래 선후로 《상사집》, 《산혼》, 《신단수》, 《뼈꾸기》, 《원용》 등 13 부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중 토템시집 《신단수》와 《원용》은 시단과 학계의 반향이 점차 드높아져 여러 연구자들이 《떼지어 모여드》는 기세를 보이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년의 시단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특히 시인만 보면 피해버리는 상업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정말 흔치 않습니다.

독자: 지난세기 80년대에 룰원소적은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우리앞에 다가오고있는 상업사회가 얼마나 발달하든간에 정상적인 인성정신을 품질로 하는 문학은 결코 소실되지 않을것이다.》오늘 단지 남영전의 현상만 놓고보더라도 이 말은 정말 령험이 있습니다.

평론가: 오늘의 토론제목은 여기서 그치고 좀 숨을 돌렸다

가 다시 남영전의 《원용》에 있는 42수의 토템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B. 남영전의 시학리념과 시미학형태

독자: 조선족시인 남영전이 18년간 룡속 써낸 42수의 토템시로 책을 묶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우리들로 하여금 책을 차게 하는것은 토템시집이 출간되자마자 이 시집을 긍정하는 연구논문들이 쏟아져나왔고 그것이 또 평론집으로 묶어져 잇달아 출간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전업화한 이 학술저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모종 의미에서 말하면 이것은 마치 하나의 강력한 출격의 《선서행동》 같기도 합니다.

평론가: 《선서행동》이라 해도 별로 과언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조작충면에서의 기술성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의 예술심미의 정보를 전달하고있으며 가능하게는 오늘의 중국의 시단에 있어서 력사적의미를 띤 《시가사건》일수도 있습니다.

시인: 남영전이 시세계에 안주한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십년의 광음이 흘렀습니다. 어떤 심각하고도 절실한 체험은 시가접수체와의 상호 소통, 상호 인식이 수요됩니다.

평론가: 정확히 말해서 시인 남영전은 여러 사람들에게 토템시에 대한 자기의 추구정신과 미학형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독자: 조금도 의심할바 없이 《원용》은 우리들에게 비교적 낮은 열독의 길을 제공해줍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토템시의 창작은 중국 당대의 시가독물중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중국 고대의 시가독물중에도 이런 사례는 공백이 아납니까? 당신들은 시를 연구하고있으니 여기에 대해 아마 상당한 료해가 있을것입니다.

평론가: 딱 그렇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것처럼 우리의 열독시아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전에 장악한 자료에 의하면 의식적이든 잠재의식적이든 토템시를 쓰는 시인들이 퍼그나 있으며 또 가작이라고 할만한 시들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독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수 없을가요?

평론가: 고대나 외국은 그만두고 중국 현대대를 놓고봐도 일부 저명한 시인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례하면 곽말약의 장시 《봉황열반》(鳳凰涅槃), 지디마자의 계렬단시 《구리라다의 양》(古里拉達的岩羊), 바머취부머의 조시 《도안의 원시》(圖案의原始), 반귀의 단시 《천장》(天葬), 《설역》(雪域), 황신표의 장편산문시 《화산벽화》(花山壁畵) 등등. 이러한 시들은 사실상 토템시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인들은 관념상에서 자기들이 쓴것이 토템시라는것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평론계에서도 여기에 대해 리론적으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남영전은 의식적으로 준비있게, 목표있게 토템시를 탐색하고 창작한 첫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남영전의 공개적인 창작관념에서도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남영전은 토템시창작에서 자각적으로 리론연구를 앞세우고 창작을 강화한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독자: 남영전의 토템시가 중국 당대시단에 나타나자 일정한 정도로 평론계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 중요한 가치와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게 아닐가요? 중국 당대시인대오에는 창작에서 성적이 있는 시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학전설에서 가치를 내건 시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인: 남영전은 일찍 《종적으로 역사정신을 편집시키고 횡적으로 세계문화를 참조하면서 민족의 정신을 발굴하고 재구축하며 폭이 넓고 깊이 있는 민족사시를 써내는것이 내가 시를 쓰는 최고의 추구이다.》⁽²⁾고 말한바 있습니다. 사실 그는 미리 분투목표를 설정하고 한걸음 한걸음 모색하고 실천했습니다. 내가 인정하건대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이 매진하고있는 《과정》입니다.

평론가: 가능하게 사람들은 시가는 이미 남영전한테서 하나의 《건축방안》으로 되어있고 그는 설계사의 배역을 담당하고있음을 주목하고있을것입니다. 하여 그는 아주 감성적이면서도 더 우기는 이성적입니다. 그가 설계한 토템시는 내용이든 형식이든 상당히 주밀하여 물샐틈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토템은 하나의 기치이고 하나의 정신이고 하나의 응집력이며 형제와 같은 정이며 인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있는 아름다운 리상이다. 나는 나의 매편의 토템시가 하나의 작디작은 나팔이 되어 토템의 영원한 가치원소를 환기시키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화해를 환기시키며 세계의 융합을 환기시키기를 바란다.》⁽³⁾

독자: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시가본신에서 미학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시가 본신이 나타내는 미학형태를 혼상하는것을 더 즐깁니다. 특히는 시인이 시의 천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창

작에 참여할 공간을 남겨줄것을 더욱 기대합니다. 만약 한 시인의 리념(그의 념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이 시가독자의 심미적요구를 저지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이 시인의 시가텍스트도 틀림없이 자기로서 그 심미적효과를 물어버리게 되는것입니다.

평론가: 그러므로 우리는 줄곧 시인이 자기의 창작의도를 해석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무의식중에 텍스트에 본래부터 있거나 잠재되어있는 미학품질을 말살해버릴수도 있기때문입니다. 사실 《원용》은 이미 다각적인 각도에서 해석되고있으며 그의 정신내함과 시의 미학품모는 시인 남영전이 먼저 만들어 놓은 틀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평론가 추천균선생이 《남영전 토템시의 정신특징과 예술선택》이란 문장에서 집행한, 보충적의미를 갖는, 리론면에서 비교적 적절한 해독공작에 주목을 돌리고있습니다.

독자: 우리는 추천균선생이 남영전의 토템시에 대해서 한 아래와 같은 말에 찬동입니다. 《매개 민족은 모두 자기의 독특한 인문정신이 있으며 이런 인문정신은 해당 민족의 정신지주와 문화발전의 동력으로 된다. 남영전이 토템시에서 관심하는것은 일종의 력사유적이거나 정선부호가 아니라 그러한 정신자체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서 발굴되어나오는것은 흔히 정신품질로서의 발광체이며 해당 민족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해온 뼈와 피다.》⁽⁴⁾

평론가: 우리는 또 시인이 사람외의 자연물질의 생태변화에도 마찬가지로 지대한 흥취와 열정으로 관심을 돌린다고 인정합니다.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동물, 식물, 풍물, 민속자체도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류의 생존력사 및 관련된 생존기억과 불가분리의 혈연관계를 갖고있기때문

입니다. 시의 성격으로 보면 그것들 자체가 바로 서정적객체로 됩니다. 전반 중국 소수민족시인들의 정신종교의식에서 무릇 그들이 능히 볼수 있고 능히 만질수 있는 자연물질은 모두 인류와 마찬가지로 령혼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시인이 보통사람들과 다른것은 바로 생태물질의 기억중에서 시화한 생존철학을 제련해내는데 있습니다. 가령 우리들의 리해가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남영전과 그의 토템시는 당연히 이러한 심미적공능을 부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C. 남영전토템시의 정신과 품격

독자: 우리는 대량의 열독물을 읽는중에 리해하기 힘든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시가창작은 20세기 90년대 중기이후 거의 모두가 일상 삶에 대한 전면적인 모방과 개인의 정서를 임의로 쏘는데로 나아갔으며 시가본체가 마땅히 구비해야 할 이미지, 경지, 우의(寓意), 운률 등 정신지향과 품격특질로 되는 개성적요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평론가: 아주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시들은 확실히 보편적으로 《수음화》(手淫化)의 괴상한 울타리에 갇혀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시가》의 출현으로 하여 시가예술이 심미적본연으로 돌아오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20세기 50년대 중기에 있었던 《민가운동》이 산생시킨 민가의 모양과 대동소이하다고 할수 있지요. 바꾸어 말하면 순전히 《민가운동》의 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인: 그때의 정황을 우리도 좀 압니다.

시의 본질로부터 보면 당연히 언급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민가작자의 창작동기로부터 보면 정감은 소박하고 진실하다고 할수 있지요.

독자: 저도 량자간에는 부동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가의 작자들은 비교적 원시생태적이며 이른바 오늘의 《시인》들처럼 개인의 공리적인 복잡한 엘리먼트가 적습니다.

평론가: 우리가 생각컨대 그들지간의 부동점은 전자는 특수한 정치배경에서 행정의 호소로 산생한것이고 후자는 상품경제가 범람하는 배경에서 시가계의 타락으로 하여 생겨난것입니다.

독자: 부인할수 없는것은 시가의 미학정신은 확실하게 바야흐로 소실되어가고있거나 적어도 이미 《제2선》으로 퇴각하고있다는것입니다. 시가의 풍부한 언어도 점점 양상해가고있습니다. 좀 과분하게 말하면 시가는 독자의 눈에 한낱 녹거리 소비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시인》들이 시가를 노리개로 여깁니다. 진정으로 시에 심혈을 몰붓는 시가예술의 건설자는 쌓에 뉘만큼이나 적습니다.

평론가: 이러한 때에 중국 당대시단의 물결우에 떠오른 남영전과 그의 토템시창작은 시가예술의 건설에서 아주 의의있는 일로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길을 알고저 돌을 던지는 격(投石問路)으로서 남영전의 토템시는 중국시단이 심미의 정도(正道)로 돌아오도록 혼을 부르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자: 객관적으로 말하면 《원용》에 있는 42수의 토템시가 우리에게 주는 총적인 인상은 시가의 정신요소와 예술품격 특징

에서 향향의 저명한 시인 람해문(藍海文)이 창도하고 실친한 《신고전주의》시풍과 아주 근사합니다.

평론가: 비슷한 기질이 있는 시인들은 미학적추구와 실천행위중에서 자연스레 고도의 일치에 이를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독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의 독자인 우리는 남영전 토템시의 가장 돌출한 시정신과 예술특성이 구경 무엇인가를 꼭 알고싶습니다.

평론가: 남영전의 토템시는 민족감, 인류감, 력사감, 문화감, 종교감이 상당히 완정하고 화해롭게 결합되며 원시문명과 현대문명이 서로 의존하는 토템정신이 비교적 충분하게 체현되어있습니다. 남영전 토템시의 시정신과 예술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창 저술하고있는 《남영전 토템시 감상과 분석》에서 매편의 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토론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거시적인 방면에서만 거론했으며 텍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과 판단은 피했습니다. 서언에서 너무 많이 너무 자세하게 《설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를 길게 인용하는것은 편폭을 랑비하는 행위이므로 우리는 극력 인용을 피했습니다. 더욱 가독성적인것은 뒤에 나오는 텍스트에 남겨두어 《어진이는 어진것을 알아보게, 지혜로운이는 지혜로운것을 알아보게》 될것입니다.

독자: 당신들의 《유도전술》을 물론 리해할만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개 문제를 우리는 더 알고싶습니다. 조선족시인 남영전의 42수의 토템시에서 어느것이 대표작인지요? 그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추천해줄수 없겠는지요?

평론가: 우리들은 남영전의 42 수의 토템시 즉 《원융》이란

시집을 결구성이 아주 강한 하나의 정체로 보고있습니다. 비록 매편의 이미지와 의경이 각이한 형태로 독립되어있으나 그것들 지간의 정신적맥락과 언어상태는 비교적 분명하게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원융》을 오늘까지에 이르는 남영전의 시가창작생애에서의 한부의 대표성적인 작품이라고 여깁니다.

주 해:

- (1) 남영전시집 《원융》(료녕민족출판사, 2003. 8.)
- (2) 추천군 편저 《원시토템과 민족문화》(시대문예출판사, 2003. 11.)
- (3)(4) 동상.